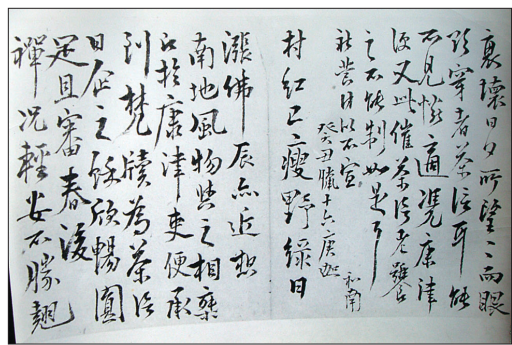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지혜를 멀리까지 주십시오”

추사는 초의가 보낸 차포를 받고 한껏 들떠 있었다. 초파일이 가까워진다고 하였으니 초의가 보낸 차는 새로 만든 것인가 보다. 이 편지는 그가 병완(病院)이란 호를 쓴 것으로 보아 과천 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된다. 날로 쇠잔해지지만 차는 그를 웃음 짓게 한 물품이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가 과천 시절 보낸 편지

초의의 차포 선물에 한껏 들떠 “날마다 기다리던 것이라 흡족”

暢圓足 且審春後 禪況輕安 不勝翹喜 以邇來鞞白果何如 以此日以衰朽者觀之 似無異同石髓松骨 不當作世諦邊遷流變 知遙遙 註 俗狀毫無可聞 依舊木石抱冤窮山 使出世間者 適足悲憫而已 茶包眼開 近日專以依賴 荷此遠嗣 可笑處 必不入於耳根圓通 第此一告之 眼花不式 既望 病院

이 편지는 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때에 보낸 듯하다. 그가 ‘들에는 푸름은 날로 성해 간다는 것이 그렇고, ‘초파일이 또 가까워지는데’ 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강진에서 온 아전 편에 초의의 편지와 차를 받았다. 따라서 초의의 편지는 추사의 말처럼 ‘날마다 기다리던 것이라서 기쁘고 흡족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갑인 이들이 더욱 쇠락해져가는 모습은 ‘날로 쇠잔해지는 사람이 보단 돌의 정수와 소나무의 기골과 같고 다름이 없다’는 뜻과 ‘촌마의 기골과 같고 다름이 없다’는 뜻

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이렇듯 높아지지만 초의 수행이 평안하고 가벼워졌다는 소식은 ‘뿔 뿔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추사였다.

진정 우정은 그런 것이다. 늘 마주하여 말할 수 없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은 지적에 있는 듯했다. 그래서 멀리서 온 편지는 더욱 가슴 가득 감동이 일었으리라. 이런 마음을 전하고, 전해 받았던 벗이기에 차를 만든 초의는 강진의 아전이 상경한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새로 만든 차는 자신을 잊지 못하는 벗, 추사에게 제일 먼저 보냈을 것이다. 더구나 만년의 추사는 불교의 연구와 차에 의지해 쓸쓸한 세월을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에게 차는 근심을 없애는 망우초(忘憂草)였던가.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하는 차포는 멀리 대회사에서 초의가 보낸 햇차였다. 속세의 속절없는 변화는 이익에 밝은 사람들의 변화이고, 또 다른 한편은 흘러가는 세월일 게다. 멀리서 온 차포만이 추사를 ‘웃음 짓게 하는 것’ 이어서 아마도 이근원통(耳根圓通)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근원통(耳根圓通)은 관세음께서 중생들은 이근(耳根: 귀뿌리)이 총명하므로, 청각의 언어를 통해 이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차만을 좋아하는 자신은 수행의 진리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니 그의 차포(茶癖)는 이처럼 깊었던 듯하다. 추사의 산뜻한 이 위트는 그만인 만들어 낼 수 있는 푸유이요, 격이라 하겠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속에 한국불교 꽃 피우자” 영어로 법회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포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포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에게 묻고 어른들이 원하는 건 어른들에게 물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상대를 위해 나를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고 사는 것이 포교이며 수행입니다.”

1월 20일 눈 내리는 겨울 아침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다. 지난해 하반기 본지에서 전법일기를 연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님의 포교 이야기와 수행 이야기를 들어왔다.

수좌의 꿈을 안고 백홍암으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외국인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했던 원명 스님과 무진 스님 모두 국제포교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라 지금 자우 스님이 국제포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 당시에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좌스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족들의 만류로 첫 번째 출가에 실패(?)하고 스님이 두 번째로 출가하기 위해 찾아가던 곳은 다큐 영화 ‘길 위에서’로 유명한 비구니 선방 백홍암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선원장 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백홍암은 최근 다큐 영화로 유명해졌지만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행자 생활이 고되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노동하고 수행하며 치열하게 사는 곳이 백홍암이며 이곳에서 행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행자 시절에 가장 큰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당시 백홍암은 3년 행자 생활을 해야 강원을 보내줬어요. 그때 스님으로 살아야 할 모든 걸 다 배운 거 같아요. 행자 생활은 용광로와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세의 습을 녹이고 비워 내는 시간이지요. 정말 안전하게 녹여내지 않으면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백홍암에서의 행자 생활은 수행자로서 살아야 할 가장 기초적 덕목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이후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에서 강원을 마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승가대 강사 제안을 받지만 거절하고 석남사 대원사 약수암 백홍암 등을 돌며 안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형들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사서삼경을 공부하며 국제포교사를 품은 후 스리랑카로 유학을 떠난다.

이후 원명 스님의 제안으로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 소임을 2년간 맡는 등 해외 포교도 경험하게 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이후 백홍암 대성암 등의 선방에서 안거에 틀어 다시 수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어느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한다. 병원에 가니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안거 중에 나와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암이라고 하니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싶었죠. 수술 전에 짐을 정리하니 제 집이 두 박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박스를 바라보니 수행자로 살아온 내 삶이 너무 단출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마를 극복하고 포교의 길로

스님은 수술 후 잠시 쉴 곳을 마련해 들어간 곳이 현재의 비로자나국제선원이다. 스님은 그리고 이곳에 포교의 길을 걸었다. “부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를 생각했어요. 도심 속에 있으니 또 이곳 사

람들의 아픔과 번뇌 고민이 느껴졌어요. 산속에서의 참선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도심포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접하고 출가를 해서 들어온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이나 한국에서 출가를 발원하는 외국인 스님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이곳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스님은 수술을 계기로 2006년 비로자나국제선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도심 속 포교를 시작했다. 결국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국제포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 유학시절 3~4살 때부터 아이들이 절에서 글자도 배우고 인터넷서널 답마스크 과정으로 영어공부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던 스님은 이와 함께 어린이 영어 포교도 시작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어린이 영어 포교였다.

“청소년부는 국제청소년포교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봉사 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진학에도 도움이 되

원명·무진 스님 권유로

영천 백홍암으로 출가

안거 중 갑상선암 진단

병마 이겨내면서

도심속 국제포교 발원

비로자나국제선원 개원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외국인 참선 프로그램 등

영어 점목한 법회로

대중들에게 호응 얻어

“포교공동체 설립이 목표”

니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면서 발표력도 기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죠. 어린이들은 답마스크와 선원의 자체 교재 등으로 영어 법회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법당에서 형 누나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니 영어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돼요.”

특히 스님이 진행하는 영어 캠프는 아이들이 여름이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매년 70~80여 명이 참여하는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가족여행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스님의 여름 캠프다.

이렇게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영어를 배운 어린이들은 자타가 압송대회 등에 나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6년 연속해서 받아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에 나가 외국인 어린이 손님들 맞아 불교를 설명해주는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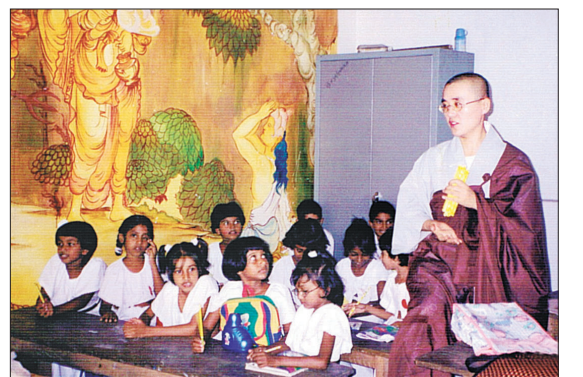
2004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어린이들과 함께



불교문화마당에 참여한 비로자나국제선원



2009 여름 영어 법회 캠프



스리랑카 영어담마스크 지도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위원회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의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중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